

농가의 컨설팅 수용태도에 따른 특성 분석

이두희¹ · 김재홍

Analysis on Farm Consulting Reception With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Doo-Hee Yi¹ · Jai-Hong Kim

ABSTRACT

Various government-based consulting techniques are being adapted to increase competitive power and to achieve management innovation of Korean farms. These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are offered by free or paid consulting.

This study focuses on wha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re affecting farmers' intension of adapting consulting services, based on 169 surveyed data from Chunchungnam-do. Logit Model is us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bability of consulting intent and factors representing farm characteristics. The model was applied on each of free and paid consulting.

According to the results, degree of consulting recognition, age, education, raised crop a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farmers' intension of adapting consulting service in the case of free consulting at 10% of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paid consulting, level of farming, age, income, insufficiency of farming, and education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factors.

In terms of elasticity of each variable, most variables for free consulting service are inelastic to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E-mail: jaihong@cnu.ac.kr.
Tel:042-821-6747

¹ 충청남도 농업기술원(Chungch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consulting intent, whereas age, level of farming, and education are elastic for paid consulting service. Overall results implies that more public relations are required to activate free consulting services for the farms with moderate level of farming. In the case of paid consulting, it is effective to adapt consulting services for younger farms with higher level of farming and education.

서 론

우리농업은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추세에 맞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1990년대 후반기에는 IMF라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국가 전체적인 위기를 겪는 등 현재 농업이 국내외적으로 안고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을 지키는 일뿐 아니라 나아가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기르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개선노력도 중요하지만 관행적인 농가경영에서 탈피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스스로의 경영혁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농업경영체의 특성상 경영주 스스로 경영혁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약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부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개발과 농가보급 역할을 맡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혁신 지원책의 일환으로 농촌지도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농림부 역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컨설팅기관을 이용한 농업분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컨설팅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농업인이 '컨설팅'이라는 경영혁신 기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컨설팅사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농가에 접근해야 하는지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유료 컨설팅이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컨설팅 서비스의 농업분야 도입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농가의 '컨설팅'에 대한 수용의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가특성에 따른 컨설팅 수용 확률을 모형을 통해 도출함으로써 농가의 다양한 특성들이 무료 및 유료컨설팅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유료」와 「무료」의 수용의사 차이가 농가특성 차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도출하는데 본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농가의 컨설팅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내 169농가에 대하여 설문지에 의한 농가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99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시군농업기술센터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표본단위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하였고 조사범위는 충남지역에 국한하였다.

조사내용은 현재 실시되고있는 농업분야의 컨설팅에 대하여 유료와 무료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수용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하여 응답자가 이분선택(binary choice)을 하도록 하였으며 농가

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영농수준과 컨설팅을 받을 경우 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는지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분석방법으로는 QDV(qualitative dependant variable) 모형 중에서 특히 이진선택을 다루는 몇 가지 모형 중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조사농가 개황 및 컨설팅에 대한 인식분석

1. 조사농가 일반현황

농업분야 컨설팅도입에 대한 농가의 인식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도내 169농가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재배작목은 수도작 재배농가가 69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채소, 과수의 순이었다.

연령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40~50대가 88.5%로 주를 이루었다.

학력분포는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중졸과 고졸이 전체 응답자의 81.1%이며 응답농가의 조수입 분포는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47.9%로 주를 이루었으며 7,500만원 이상도 13%나 되었다.

표 1. 재배작목

| 계 | 벼 | 시설채소 | 과수 | 벼섯 | 축산 | 기타 |
|-----|----|------|----|----|----|----|
| 169 | 69 | 40 | 21 | 16 | 12 | 11 |

표 2. 연령분포

| 평 균 | 40세 미만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
| 47.9세 | 21명 (12.4%) | 82명 (48.5%) | 54명 (40.0%) | 12명 (7.1%) |

표 3. 학력분포

| 응답자 수 | 국졸이하 | 중졸 | 고졸 | 대졸이상 |
|----------------|----------------|----------------|----------------|--------------|
| 169명 (100%) | 24명 (14.2%) | 62명 (36.7%) | 75명 (44.4%) | 8명 (4.7%) |

표 4. 농가 조수입 분포

| 평 균 | 2,500만원 미만 | 2,500 ~ 4,999만원 | 5,000 ~ 7,499만원 | 7,500만원 이상 |
|---------|----------------|-----------------|-----------------|----------------|
| 4,738만원 | 36명 (21.3%) | 81명 (47.9%) | 30명 (17.8%) | 22명 (13.0%) |

2. 경영·기술컨설팅에 대한 농가 수용의사

현재 자신농장에 컨설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26.8%만이 필요없다고 답한 반면 73.2%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영농과정에 대하여 스스로 부족한 점을 느끼는 농장주가 많다는 것으로, 그 비율이 73.2%나 된다는 사실은 컨설팅비용이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농업분야 컨설팅 기법의 도입에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26.8% 중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컨설팅을 받아도 실질적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45%로 이는 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신뢰감만 심어준다면 얼마든지 농가의 컨설팅 수요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결과이다.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재배기술 쪽이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농가에서 취약한 부분인 기장이나 회계, 재무관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 못했다.

3. 농가의 컨설팅료 지불의사

컨설팅을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는 농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다. 물론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라면 컨설팅을 받는 대가의 지불은 당연한 것이며 새삼 문제시할 필요가 없겠지만 농업은 그동안 그 영세성이나 특수성을 내세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지불에 정부의 보조 내지는 지원을 당연시 해왔고 컨설팅 역시 비용을 농가에서 10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그동안의 사업추진과정에 비추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컨설팅의 효과에 대해서 농가의 믿음이 강하다면 유료컨설팅에 대한 농가생각이 지극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개선이 농가에 강한 확신을 주고있지 못한 시점에서 농가가 유료 컨설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향후 컨설팅의 활성화 여부에 주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표 5. 컨설팅을 받게 될 경우 컨설팅 비용에 대한 농가 태도

| 농가 의사 | 비율 |
|---------------------------|--------|
| 무료라도 컨설팅을 받지 않겠음 | 6.1 % |
|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불해야 한다면 받지 않겠음 | 53.4 % |
|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컨설팅을 받을 의사가 있음 | 40.5 % |

또한 유료컨설팅에 대한 농가의 태도는 영농작목이나 농가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설문결과에 의하면 시설채소와 버섯 그리고 축산농가의 유료컨설팅 의사가 타 작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작목별 유료컨설팅 수용의사

| 작 목 | 시설채소 | 버섯 | 축산 | 과수 | 벼 | 노지작물 |
|----------|------|------|------|------|------|------|
| 농가비율 (%) | 52.6 | 50.0 | 41.7 | 38.1 | 35.5 | 16.7 |

농가의 조수입과 소득별로 유료컨설팅의사를 살펴본 결과 유료컨설팅의 수용여부에 대한 태도는 농가의 조수입 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라 그 특성을 다르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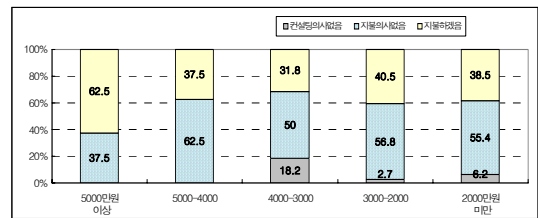


그림 1. 소득별 컨설팅료 지불의사

컨설팅 수용태도와 농가특성 분석

1. 분석모형의 설정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경우 즉 컨설팅료가 유료일 경우와 무료일 경우에 농가특성이 컨설팅을 '받겠다' 와 '받지 않겠다'의 두 가지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질적 반응변수를 다루는 모델 중에서도 특히 이분적반응모델(binary choice model)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적합한 모델로는 프로빗모델이나 로짓모델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실제 분석과정에서 모델을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편리한 로짓모형을 선택했으며 독립변수에는 컨설팅수용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가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선택했으며 종속변수 즉 농가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반응변수는 컨설팅을 받겠는지를 ‘예’ 와 ‘아니오’ 의 두 가지로 선택했다.

농가의 컨설팅 수용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컨설팅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월1회 정도의 방문 및 매주 한번 정도의 상담’을 제시하였다.

식(1) 과 식(2)는 각각 무료일 경우와 유료일 경우에 로짓모형을 변환한 것이다.

$$(1) X_i\alpha_i = \alpha_0 + \alpha_1LEV + \alpha_2WEAK + \alpha_3KNOW + \alpha_4CAR + \alpha_5OTH + \alpha_6ITEM + \alpha_7FULL + \alpha_8AGE + \alpha_9EDU + \alpha_{10}SALE + \alpha_{11}INC$$

$$(2) X_i\beta_i = \beta_0 + \beta_1LEV + \beta_2WEAK + \beta_3KNOW + \beta_4CAR + \beta_5OTH + \beta_6ITEM + \beta_7FULL + \beta_8AGE + \beta_9EDU + \beta_{10}SALE + \beta_{11}INC$$

2. 변수의 정의

농가가 컨설팅을 받을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가의 요인들은 무수히 많겠지만 본 분석에서는 비교적 컨설팅 수용의사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1가지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7과 같다.

3. 변수에 대한 단순통계량

설문농가의 자신이 생각하는 영농수준은 평균적으로 중간수준을 약간 넘었으며 자신의 가장 미흡한 부분은 경영관리 분야보다는 그 외 분야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았다. 컨설팅사업에 대한 인지

표 7. 변수의 정의

| Variable Name | Description |
|---------------|--|
| ACTFREE | 컨설팅비용이 무료일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겠다 1, otherwise 0 |
| ACTPAY | 컨설팅비용이 유료일 경우에도 컨설팅을 받겠다 1, otherwise 0 |
| LEV |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영농수준 : 하위 1, 중하위 2, 중간 3, 중상위 4, 상위 5 |
| WEAK | 자신의 가장 미흡한 부분이 경영관리이면 1, otherwise 0 |
| KNOW | 농업분야의 컨설팅사업에 대한 인지도 : 잘알고있음 1, 약간알고있음 2, 모름 3 |
| CAR | 영농경력 : 단위 년 |
| OTH | 영농이외의 직업경력이 있다 1, otherwise 0 |
| ITEM | 주작목이 수도작이외의 작목이다 1, otherwise 0 |
| FULL | 현재의 작목이 전업작목이다 1, otherwise 0 |
| AGE | 경영주의 나이 : 단위 세 |
| EDU | 경영주의 학력 : 국졸 1, 중졸 2, 고졸 3, 대졸이상 4 |
| SALE | 조수입 : 단위 백만원 |
| INC | 소득 : 단위 백만원 |

도는 컨설팅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는 수준이며 영농경력은 평균 18.5년으로 비교적 풍부한 영농경력을 갖고 있었다. 영농이외의 경력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영농작목은 약 40%가 수도작이고 60% 정도가 시설채소 등 다른 작목이었다.

현재의 작목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63%이며 평균나이는 약 48세 정도였다. 또한 영농주의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사이이며 연평균 조수입은 4700만원에 소득은 26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무료 및 유료컨설팅을 받겠다는 농가와 받지 않겠다는 농가 사이에 각 변수의 평균값은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표 8과 같다.

4. 추정 결과

가. 무료 컨설팅의 경우

먼저 추정된 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영농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장 미흡한 부분이 경영관리라고 생각할수록, 농업분야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영농경력이 높을수록, 영농이외의 직업경력이 없을수록, 주작목이

수도작이외의 작목일수록, 현재 영농작목이 전업작목이 아닌 경우, 경영주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영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수입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무료컨설팅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유의수준에서 유의성있게 나타난 변수로는 컨설팅인지도, 영농작목, 경영주연령, 교육수준 등이며 유의수준을 20%로 할 경우 여기에 영농수준과 영농경력의 변수가 추가된다.

여기에서 특히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은 무료컨설팅의 경우에 조수입 이나 소득이 유의성이 없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컨설팅에 대한 비용지불이 없는 상태에서는 농가의 경제적 수준보다는 컨설팅인지도 또는 경영주의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이 컨설팅에 대한 마인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의해 컨설팅 수용의사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유료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비용이 유료일 경우에 컨설팅을 받을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자

표 8. 각 변수의 단순통계량

| Variable | Mean All | 무료컨설팅(ACTFREE) | | 유료컨설팅(ACTPAY) | |
|----------|----------|----------------|----------|---------------|----------|
| | | Mean D=1 | Mean D=0 | Mean D=1 | Mean D=0 |
| C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LEV | 3.1420 | 3.2353 | 2.9200 | 3.3667 | 3.0183 |
| WEAK | 0.3787 | 0.4034 | 0.3200 | 0.5000 | 0.3119 |
| KNOW | 1.9645 | 2.0756 | 1.7000 | 2.0833 | 1.8991 |
| CAR | 18.5562 | 18.2857 | 19.2000 | 17.1000 | 19.3578 |
| OTH | 0.3432 | 0.3361 | 0.3600 | 0.3667 | 0.3303 |
| ITEM | 0.5976 | 0.6723 | 0.4200 | 0.6833 | 0.5505 |
| FULL | 0.6331 | 0.6050 | 0.7000 | 0.5667 | 0.6697 |
| AGE | 47.9468 | 46.8991 | 50.4400 | 44.9333 | 49.6055 |
| EDU | 2.3965 | 2.4790 | 2.2000 | 2.7333 | 2.2110 |
| SALE | 47.3787 | 49.9635 | 41.2270 | 56.2075 | 42.5188 |
| INC | 26.2033 | 27.7505 | 22.5208 | 31.5868 | 23.2398 |

표 9. 추정결과(Dependent variable: ACTFREE)

| Number of observations = 169 | | R-squared = .179879 | | |
|--|------------|---------------------------------|-------------|---------|
| Number of positive obs. = 119 | | Kullback-Leibler R-sq = .168238 | | |
| Mean of dep. var. = .704142 | | Log likelihood = -85.3687 | | |
| Sum of squared residuals = 28,8837 | | | | |
| Number of Choices = 338 | | | | |
| Fraction of Correct Predictions = 0.745562 | | | | |
| Parameter | Estimate | SE | t-statistic | P-value |
| C | -1.77037 | 1.91357 | -.925165 | [.355] |
| LEV | .370273 | .250912 | 1.47571 | [.140]* |
| WEAK | .119783 | .446481 | .268283 | [.788] |
| KNOW | .923764 | .362079 | 2.55128 | [.011]* |
| CAR | .037811 | .024485 | 1.54426 | [.123]* |
| OTH | -.377976 | .450146 | -.839674 | [.401] |
| ITEM | 1.14683 | .440018 | 2.60633 | [.009]* |
| FULL | -.277294 | .439524 | -.630897 | [.528] |
| AGE | -.052185 | .030047 | -1.73679 | [.082]* |
| EDU | .499780 | .286760 | 1.74285 | [.081]* |
| SALE | -.6935E-02 | .6171E-02 | -1.12375 | [.261] |
| INC | .016255 | .018241 | .891108 | [.373] |

주)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at the 20% level

신이 생각하는 영농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장 미흡한 부분이 경영관리라고 생각할수록, 농업분야 컨설팅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영농경력이 높을수록, 영농이외의 직업경력이 없을수록, 주작목이 수도작이외 작목일수록, 현재 영농작목이 전업작목이 아닌 경우, 경영주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영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수입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유료컨설팅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유의수준에서 영농수준, 미흡한 분야, 경영주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변수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수입의 경우에는 2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나 계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호 역시 부(-)로 나타나 컨설팅의 수용여부

에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영향의 정도는 작지만 영농의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조수입이 높을수록 컨설팅 수용의사가 낮아진다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수입이라는 변수 자체가 컨설팅수용의사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석에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볼 수도 있으며 두번째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는 이미 나름대로의 기술수준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컨설팅 수요가 적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ullback-Leibler R^2 값을 보면 ACTPAY 즉 유료컨설팅의사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 ACTFREE, 무료컨설팅의 경우보다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추정결과(Dependent variable: ACTPAY)

| Number of observations = 169 | | R-squared = .244010 | | |
|--|--------------|---------------------------------|-------------|---------|
| Number of positive obs. = 60 | | Kullback-Leibler R-sq = .207959 | | |
| Mean of dep. var. = .355030 | | Log likelihood = -87.0732 | | |
| Sum of squared residuals = 29,2560 | | | | |
| Number of Choices = 338 | | | | |
| Fraction of Correct Predictions = 0,739645 | | | | |
| Parameter | Estimate | SE | t-statistic | P-value |
| C | -2.33401 | 2.02507 | -1.15256 | [.249] |
| LEV | .514227 | .251313 | 2.04617 | [.041]* |
| WEAK | .974612 | .432378 | 2.25408 | [.024]* |
| KNOW | -.145857 | .335659 | -.434540 | [.664] |
| CAR | .023518 | .026411 | .890478 | [.373] |
| OTH | -.419301 | .456705 | -.918099 | [.359] |
| ITEM | .591577 | .443407 | 1.33416 | [.182]* |
| FULL | -.410780 | .416298 | -.986745 | [.324] |
| AGE | -.069956 | .033848 | -2.06673 | [.039]* |
| EDU | .919060 | .311065 | 2.95456 | [.003]* |
| SALE | -.862519E-02 | .5343E-02 | -1.61414 | [.106]* |
| INC | .037963 | .017055 | 2.22585 | [.026]* |

주)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at the 20% level

5. 추정결과 분석

가. 영농수준과 컨설팅수용의사와의 관계

다른 변수들이 일정(평균값)하다고 가정할 때 유료컨설팅의 경우보다는 무료컨설팅의 경우가 컨설팅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각각의 경우에 스스로 영농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확률은 높아지는데 이는 영농기술이 높아감에 따라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농수준이 높아질수록 컨설팅을 받을 확률은 무료의 경우보다 유료의 경우에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이는 영농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평가하여 컨설팅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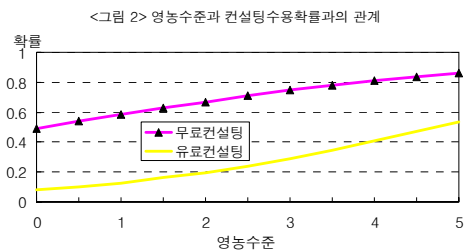


그림 2. 영농수준과 컨설팅수용확률과의 관계

나. 기술이 취약한 분야와 컨설팅수용확률과의 관계

무료컨설팅의 경우에는 농가의 기술수준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경영분야 이든 다른 분야이던 수용확률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유료컨설팅의 경우에는 경영분야가 취약할 때 약 20%정도 수용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보통 농가에서 재배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준보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영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이와는 달리 농가 스스로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경영기술을 받아들이고자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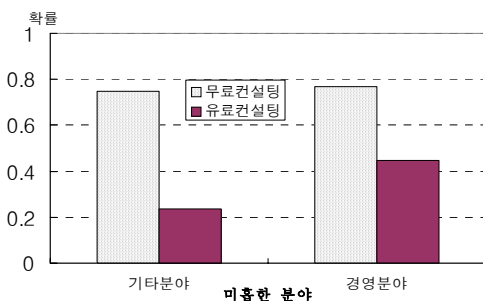


그림 3. 미흡한 분야와 수용확률

다. 주작목과 컨설팅수용확률과의 관계

컨설팅 비용이 무료일 경우에는 주작목이 수도작 일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컨설팅을 받을 확률이 23% 높아지며 비용이 유료일 경우에는 영농작목이 수도작인 경우보다 그 외 작목인 경우에 컨설팅 수용확률이 13%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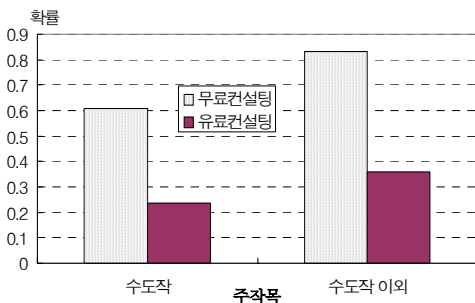


그림 4. 주작목과 수용확률

그러나 컨설팅 비용이 무료일 때나 유료일 때 모두 수도작 농가보다는 기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컨설팅 수용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 향후 유료컨설팅 및 무료컨설팅 모두 컨설팅의 주요대상에서 수도작 농가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라. 경영주연령과 컨설팅 수용확률과의 관계

무료 및 유료컨설팅 모두 경영주의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컨설팅을 받을 확률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특히 유료컨설팅의 경우에는 50세가 넘어가면 그 확률이 28%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젊은 영농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경력으로 인해 영농기술의 축적이 미흡하여 외부의 조언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반면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영농기술에 대한 과신 때문에 외부의 도움에 대하여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젊은 영농주일수록 농업을 하나의 선택한 직업으로 인식하여 향후 발전에 대한 의욕 및 변화를 추구하나, 반면에 고령화된 영농주일수록 영농자체를 선택한 직업보다는 물려받은 어쩔 수 없는 직업으로 인식하면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기존방식을 유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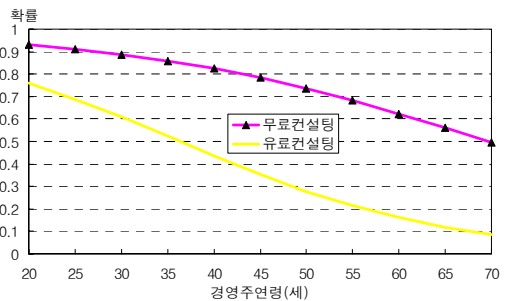


그림 5. 경영주의 연령과 수용확률

고자하는 잔여영농기간이 많고 적음에 따른 위험 (변화)선호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 경영주 교육수준과 컨설팅 수용확률과의 관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컨설팅을 받을 확률은 점점 높아지며 특히 유료컨설팅의 경우가 무료일 경우보다 학력수준에 따라 컨설팅을 받을 확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학력수준에 따라 컨설팅 기법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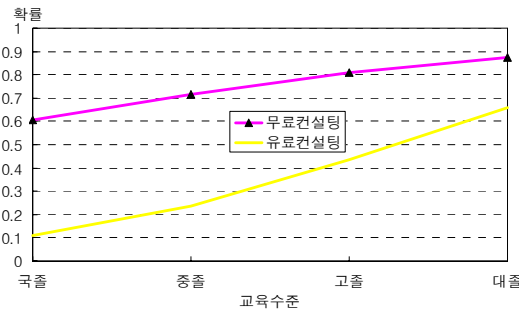


그림 6. 교육수준과 수용확률

바. 소득과 컨설팅을 받을 확률과의 관계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컨설팅을 받을 확률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치지만 유료컨설팅의 경우에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유료컨설팅의 경우에는 비용지출이 수반되고 그러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느냐 마느냐는 컨설팅을 통한 미래수익의 창출가능성에도 영향을 받지만 현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소득이 상대적으로 커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농가소득수준은 유료컨설팅을 수용할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되며 유료컨설팅을 받을 확률이 50%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연간소득이 4,750만원은 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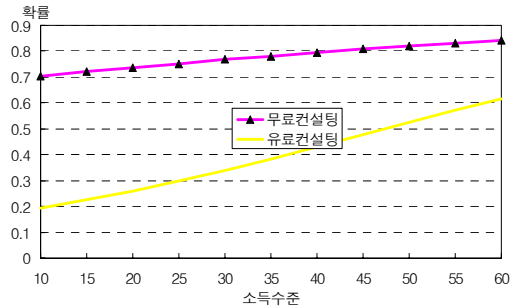


그림 7. 소득수준과 수용확률

6. 주요변수에 대한 탄력성분석

직접탄력성은 대안선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대안선택확률의 변화율로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안선택확률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표 11. 컨설팅을 받을 확률에 대한 직접탄력성

| Variable Name | 무료컨설팅 | 유료컨설팅 |
|---------------|-------|-------|
| LEV | 0.28 | 1.12 |
| KNOW | 0.44 | -0.20 |
| CAR | 0.17 | 0.30 |
| AGE | -0.61 | -2.32 |
| EDU | 0.29 | 1.52 |
| SALE | -0.08 | -0.28 |
| INC | 0.10 | 0.69 |

전체적으로 무료컨설팅 보다는 유료컨설팅의 변수들이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료컨설팅의 경우 영농수준, 경영주의 나이, 경영주의 교육수준 등이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즉 유료컨설팅을 받을 확률은 다른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영농수준, 나이, 교육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컨설팅의 공급주체별 특징을 살펴보고 컨설팅이라는 서비스의 수요자인 농가의 의향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내 169농가에 대한 컨설팅관련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해보면, 농업분야의 컨설팅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70.5%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경영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농가의 73.2%가 현재 자신의 농장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전문컨설턴트 육성 등 공급측면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농업분야의 컨설팅제도가 활성화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컨설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분야로는 67%의 농가가 재배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선호하고 있으며 회계·재무관리 및 경영분야는 상대적으로 컨설팅수요가 적었다

또한 컨설팅을 받고싶어하는 농가 중에서도 53.4%가 비용지불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컨설팅 유료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채소 및 벼농가는 상대적으로 비용지불의사가 타 작목보다 많았고 컨설팅에 대한 농가의 비용지불의사는 농업조수입보다는 작목소득액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의 특성과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수용의사와의 관계를 Logit model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수용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성(10%유의수준)있는 변수로는 컨설팅인지도, 영농작목, 경영주연령, 교육수준 등이며 무료컨설팅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영농수준이 중간정도인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의 홍보강화를 통해 농가의 컨설팅사업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료컨설팅의 경우에는 영농수준, 농가에서 미흡한 분야, 경영주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변수가 수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유의수준) 로짓분석 및 각 변수의 탄력 성분적결과를 토대로 하면 농가의 유료컨설팅 수용확률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컨설팅의 유료화를 위해서는 영농수준이 상위이고 나이는 36세 이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 소득은 4700만원 이상인 농가를 주요 컨설팅대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재홍, 2001, 농업경영 컨설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과학연구28-1.
2. 김정호, 1997,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활동 지원시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김종업, 1995, 신경영컨설팅, 갑진출판사.
4.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1997,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방안(내부자료).
5. 농림부, 1998,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6. 농림부 농업정책국, 1999, 정책연수결과보고서.
7. 농촌진흥청, 1997, 농가경영상담을 위한 경영진단과 설계요령.
8. 농촌진흥청 경영관실, 1999, 농가경영컨설팅가이드(내부자료).
9. 박성제외, 1998,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방안 연

-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신흥철외, 1994, 한국의 벤치마킹(2), 사계절.
 11. 이영만, 1997, 농장경영진단사업의 발전방향,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12. 조민호·설증응, 1999, 컨설팅 프로세스, 새로운 제안.
 13. 축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1998, 축산컨설팅지침서.
 14. ASFMR, 1999, Fundamentals of Agricultural Consulting.
 15. Ben-Akiva, M and Lerman, S.R., 1985, Discrete Choice Analysis: Theory and Application to Travel Demend, The MIT Press.
 16. Kubr, M., 1997, Management Consulting, 3rd ed., ILO.
 17. Spendolini M. J., 황태호역, 1993, 벤치마킹&기업 경쟁력, 김영사.